



루이지애나주 배턴루지의 인기 타이거즈에 돈이 있습니다.

두 팀 모두 14승 0패를 기록 중이며, 오늘 밤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충분합니다. 하이즈먼 트로피 수상자 조 버로우가 이끄는 LSU는 이번 시즌 대학 풋볼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클렘슨은 디펜딩 내셔널 챔피언이지만, 정규 시즌이 쉽다는 이유로 CFP 랭킹 위원회에 의해 올해 대부분 밀려났습니다. 준결승에서 2위 오하이오 주립대를 상대로 거둔 역전승은 타이거즈가 전국 어느 팀, 심지어 LSU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스위니는 자신의 쿼터백 트레버 로렌스에 대해 "올해 최고의 두 팀, 훌륭한 쿼터백 두 명, 훌륭한 매치업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챔피언십 경기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컨센서스 스프레드에서 LSU는 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머니라인은 LSU -210, 클렘슨 +180 정도이며, 각각 47.62달러와 180달러를 획득할 확률에 100달러 베팅한 것입니다. 초과/미만은 67.5포인트입니다.

kickoff는 오후 8시(미국 동부시간)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 있는 메르세데스-벤츠 슈퍼돔에서 시작됩니다.

클렘슨이 필요한 배당률

클렘슨은 지난 네 번의 대학 풋볼 시즌에서 세 번째 내셔널 챔피언십을 노리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LSU가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할 수도 있지만, 배당률을 낮추는 사람들은 챔피언들이 방어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베팅 횟수와 베팅 금액의 대부분은 LSU에 있습니다. 준결승전 이후 오즈메이커스가 라인업을 개방한 후 배턴루즈 타이거즈가 클렘슨에게 3.5점에 그친 가운데 LSU에 많은 돈이 쏟아졌습다.

라스베이거스 스포츠북은 여러 자릿수 베팅을 했습니다. 윌리엄 힐 트레이딩 디렉터 닉 보그다노비치는 지난주 ESPN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모두 LSU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상금은 LSU에 약 8 대 1, 티켓은 LSU에 약 4 대 1의 찬성입니다."

초반 움직임으로 인해 스프레드는 6.5포인트까지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최근 클렘슨에 대한 조치로 인해 5포인트까지 하락했습니다.[신용카드 현금화](#)

ESPN 풋볼 파워 인덱스 컴퓨터 시뮬레이터 예측기에 따르면, LSU가 아닌 클렘슨이 55.8%의 확률로 승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밤 경기를 예측한 ESPN의 대학 풋볼 전문가 49명 중 16명만이 클렘슨을 선택했습니다.[안전놀이터](#)

뒷마당 어드밴티지

배턴 루즈가 슈퍼돔에서 차로 약 90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LSU는 상당한 팬들의 지지와 홈구장 근처의 이점을 누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 챔피언십이 뉴올리언스에서 열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출전할 자격을 얻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습니다."라고 LSU의 에드 오제론 감독은 설명합니다.[토토사이트](#)

스위니는 선수들이 적대적인 환경에서 플레이하는 데 익숙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경기(피에스타 볼)는 로드 게임이었습니다. 애리조나에서는 먼 거리에 있습니다. 콜럼버스에서 경기를 해서 모두에게 훨씬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라고 코치는 농담으로 말했습니다.[토토사이트](#)

"LSU에게는 정말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멋진가요? 그냥 버스를 타세요. 그린빌에서 전국 챔피언십을 위해 뛰는 것과 같을 거예요."라고 스위니는 결론지었습니다.[토토사이트](#)